

한국-브라질, 고용노동 협력의 새로운 문을 열다

- 브라질 노동고용부와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협정서 체결
- 한국 고용노동정책 연수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방문
- 고용24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노동시장정보시스템 등 브라질 도입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직무대행 김민석 차관)는 브라질 마그누 라비뉴(Magno Lavigne) 노동고용부 차관보(Secretary of Qualification, Employment and Income)를 비롯한 대표단이 우리의 고용노동정책 및 제도 연수를 위해 6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브라질이 노동시장정보시스템 등 고용정책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정책·제도를 자국에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연수에 앞서 16일(월) 양국은 고용노동 분야의 교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협정서(Letter of Intent, LOI)를 체결했다. 이 협정서는 디지털 노동시장정보시스템 개발, 공공고용서비스 정책 및 직업훈련 등 분야의 정보 공유, 기술협력 및 전문가 교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양국이 실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단은 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자국 내 정책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및 유관 기관을 차례로 방문하여 한국의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16일(월)에는 서울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고용서비스 정책의 실제 운영 사례를 접하고, 17일(화)에는 고용노동부 본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각각 방문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고용정보시스템인 고용24의 운영과 노동시장 수급 예측 및 직업능력 개발 전략에 대해 학습할 예정이다.

18일(수)에는 한국고용정보원을 방문하여 노동시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례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19일(목)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폴리텍대학(인천)을 방문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적자원 양성 체계와 현장 중심의 실무 직업훈련을 참관한다. 마지막으로 20일(금)에는 한국잡월드를 견학하여 청년 진로직업체험 인프라를 둘러본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협력서 체결은 한국 고용노동 정책의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로, 브라질 노동고용부와의 긴밀한 협력은 양국 간 노동시장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양국 간 지속적인 정책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해 한국의 고용노동 정책 수출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제협력관 국제개발협력팀	책임자	팀 장	박지혜 (044-202-7162)
		담당자	사무관	최영욱 (044-202-7163)
담당 부서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서비스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병성 (044-202-7327)
		담당자	사무관	여승연 (044-202-7329)
담당 부서	고용지원정책관 고용서비스기반과	책임자	과 장	이태훈 (044-202-7671)
		담당자	사무관	류영선 (044-202-7683)
담당 부서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병수 (044-202-7269)
		담당자	사무관	지형근 (044-202-7271)